

평양치녀라 불러주시며

어느해인가 대흥청년영웅광산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마을의 운치를 살리며 조선식으로 건설된 대흥국수집에도 들리시였다.

크나큰 행복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하는 료리사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료리사들가운데 여러명이 20여년전 평양에서 광산으로
탄원한 동무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오늘 국수집에 와보니 대단히
기분이 좋다고, 평양치녀들과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잠시후 그들이 행복의 무아경에 휩싸여 국수집계단에 나란히 앉아 촬영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찬 계단에 앉아있으면 병에
걸릴수 있다고, 모두 일어서서 사진을 찍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가슴을 들먹이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사진에 평양치녀들이라고 밝히고 국수집봉사기록장에도 붙일데
대하여 다심히 이르시였다.